



버스승강장에 임시 세면대

광주시가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해 6일 광주시 금남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한 간이 세면대에서 학생들이 손을 씻고 있다. 시는 손씻기 생활화를 위해 이날부터 버스승강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 세면대 1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기자 mjna@kwangju.co.kr

신종플루 '과잉 공포' 부작용 속출

치러야할 행사들 위축...독감·폐렴 백신 접종 물리며 의약품 품귀

검역지 말고 개인위생 철저 등 차분한 대응 필요

국내에서 신종플루엔자로 인한 막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사회생활 위축은 물론 대인기피, 의약품 남용현상마저 생기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자치체의 각종 행사가 줄취소된 것은 물론 시민들이 너도 나도 계절 독감·폐렴 예방접종에 몰리면서 의약품 품귀현상이 빚어져 정작 예방접종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사로서 제대로 내몰리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에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모두 39명이지만, 5개구 보건소와 거점치료 병원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부여받은 환자는 무려 814명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폭증한 것은 실제 플루 의심증상을 보여서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플루에 대한 과민반응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플루 확진환자 사망의 한 원인이 폐렴 합병증이라는 인식 때문에 폐렴예방 백신이 때 아닌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반 병원에서 4만원이던 맞을 수 있었던 폐렴예방 백신은 현재 10만원을 주고도 접점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계절감기에방 백신도 품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의 취소·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치르기로 한 행사마저도 '플루공포'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낮고 대부분 완치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대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재까지 국내에서 4명이 숨지는 등 사망률이 0.1%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이는 사망률이 1~1.5%에

달하는 멕시코, 미국, 영국, 호주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스(SARS)의 사망률 10%와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훨씬 낮고, 스페인 독감의 2.5%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병원 감염내과 장희창 교수는 "신종 플루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막연한 공포"라며 "정부가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신종플루가 당장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유행할 경우 바이러스에 변화가 일어나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로 변해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바이러스가 머물 수 있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손은 눈, 코, 입에 가져가는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금호타이어 조업 재개

노조 '무노동 무임금' 수용...협상 극적 타결

직장폐쇄와 전면 파업으로 극단적 대립을 해왔던 금호타이어의 노사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한 지 117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69일만이다. (관련기사 8면)

이에따라 광주공장 전체 2천400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오전 근무조 600여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상복귀하는 등 광주·곡성·평택공장 모두에서 조업이 재개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일 열린 제24차 교섭에서 12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 끝에 노조측이 '무노동 무임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돼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양측은 잠정 합의문에서 2009년 기본급은 동결하고 2008년 추가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으며 2009년 성과급은 2010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남 690명에게 개별 통보됐던 정리해고 예정자 명단 자체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인력 부문에서는 특근 개념으로 운영중인 도우미(운영PO·총 214명)의 경우 정규 인원으로 전환하는 19명을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하는 등 회사 제시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거쳐 정원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 연 3회 이상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 해당 시간은 무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사측이 중단기로 했던 공정 지원금과 교통비·체력단련비·의료비 등은 지원하고, 노조 정의대책위원회 21명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은 무노동 무임금과 정원 재배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노사가 마라톤 실무조율을 거쳐 정리해고를 막는 대신, 정기 승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 요구사항 철회와 양보를 통해 막판 타협을 이뤄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종플루 환자 통계 혼선

보건당국·교육청 기준 달라... 일원화 시급

광주·전남지역의 '신종플루' 환자 통계가 보건당국과 교육청 등 기관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종플루'로 확진받은 환자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항바이러스를 투약한 환자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은 단순히 확진 또는 감염환자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플루 유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광주 39명(학생 25명)·전남 92명(학생 22명)으로 총 131명이다.

또 거점병원을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환자는 광주 814명, 전남 4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난 5일 현재 총 25개 학교에서 지금까지 6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도 교육청이 집계한 확진 환자까지 포함하면 전남도가 집계한 학생 확진 환자의 중복 숫자를 제외하고도 전남도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 수는 136명이 되는 셈이다.

시 교육청도 지난 4일 현재 광주지역 31개 학교 103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 인지, 단순 감염환자인지 구분이 없는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 확진 환자를 '신종플루' 환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받아 항바이러스를 투약한 환자로 신종플루 환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재래식
정맥주사 / 단방 / 조식 / 한국민정
가정용 / 업소용 판매
(061)381-9893
010-6586-0001

산수土風
은정직합니다.
소금·산만천물 / 불기계떡
소비자 (061)381-9893
당덕실 010-6586-0001

• 전통건강음식장 운영분장 성업중
• 세정실·물기·싱글·분류

강동권 작 '장미'

원유 개러리 2

꽃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감동한 원색이다. 강동권의 '장미' 시리즈는 훌린 듯 빠져들다 미칠 것 같은 꽃의 빛깔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원색을 여러 번 덧칠해가며 탄생시킨 색감은 은은한 꽃의 향기마저 품고 있는 듯하다.

또 꽃잎 사이를 파고드는 빛과 꽃잎이 드리우는 그림자의 조화를 통해 색의 다양한 변주도 보여준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아트페어, 상하이 아트페어, 베이징아트페어에 참여했고 서울, 광주, 부산 등지를 오가며 20여 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www.kwangju.co.kr/)를 통해 작가의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60×130cm·캔버스에 유화〉

조선대학교병원
진료센터(신관) 개원 2주년

총 20개 진료과, 700명인, 1,300여 명의 의료진이 봉사하는 조선대학교병원입니다. 일로부터 더욱 힘 있는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총 20개 진료과, 700명인, 1,300여 명의 의료진이 봉사하는 조선대학교병원입니다. 일로부터 더욱 힘 있는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센터(신관) 개원 2주년 기념으로, 광주광역시 해운포천동에 개원(수목로) 예정